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22 년 8 월

석사학위논문

해외송금과 경제성장 간의 비대칭적 관계 분석

조선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몽흐게렐

해외송금과 경제성장 간의 비대칭적 관계 분석

Asymmetric Effects of Remittances on Economic Growth

2022 년 08 월 26 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몽흐게렐

해외송금과 경제성장 간의 비대칭적 관계 분석

지도교수 이종하

이 논문을 경영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04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몽흐게렐

뭉흐게렐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_____ 심재희 _____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_____ 김석민 _____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_____ 이종하 _____ (인)

2022 년 05 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Abstract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 배경.....	1
제 2 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
제 2 장 선행연구 검토.....	4
제 3 장 해외송금의 현황.....	12
제 4 장 연구자료 및 방법론.....	17
제 1 절 연구 자료.....	17
제 2 절 변수의 설명.....	19
제 3 절 연구 추정 모형.....	20
제 5 장 실증분석결과.....	23
제 1 절 전체 국가.....	23
제 2 절 개도국과 선도국.....	30
제 6 장 결론.....	36
참고문헌.....	39

【표 목차】

<표 1> 개도국으로 유입되는 해외 송금액.....	13
<표 2> 변수들의 기초통계량.....	18
<표 3>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요약.....	18
<표 4> 변수들의 설명.....	20
<표 5> 1 인당 GDP 의 Pooled LS 와 Fixed, Random 모형 추정 결과.....	25
<표 6> 1 인당 GDP 성장률의 Pooled LS 와 Fixed, Random 모형 추정 결과....	29
<표 7> 1 인당 GDP 의 고정효과(Fixed) 모형 추정 결과: 개도국.....	31
<표 8> 1 인당 GDP 성장률의 고정효과(Fixed) 모형 추정 결과: 개도국.....	32
<표 9> 1 인당 GDP 의 고정효과(Fixed) 모형 추정 결과: 선도국.....	34
<표 10> 1 인당 GDP 성장률의 고정효과(Fixed) 모형 추정 결과: 선도국.....	35

【그림 목차】

[그림 1] 개인송금 유입 규모 추이(US\$).....	12
[그림 2] 개인송금 유입 규모(% GDP 평균).....	14
[그림 3] 개도국 1인당 GDP(US\$).....	16
[그림 4] 선도국 1인당 GDP(US\$).....	16

Abstract

Asymmetric Effects of Remittances on Economic Growth

Munkhgerel, Bayarmagnai

Advisor: Prof, Jong Ha Lee, Ph.D.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Overseas remittance plays an important role in promoting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activities in developing countries. After the mid-1980s, as globalization progressed rapidly, the number of migrant workers also increased significantly. This study builds annual panel data for the period 1990-2020 of 14 East Asian countries and attempts to analyze it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overseas remittance inflows and economic growth is symmetrical. Specifically, this study is empirically analyzed using the WDI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22) database provided by the World Bank. As shown in the empirical analysis results, remittance in East Asia reduces the poverty level of countries and promotes investment, but the effect was not different from that of other developing countries.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further analyze the countries of East Asia by dividing them into total countries, developing countries and leading countries.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showed that overseas remittance had a positive effect on economic growth in East Asian countries, but there was a slight difference between developing countries and leading countries. In other words, as a result of examining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separately based on \$10,000, it was found that overseas remittance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the increase of GDP per capita and the increase of economic growth rate in the developing countries.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leading countries, overseas remittance was found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economic growth. The above results suggest that the impact of overseas remittance on income level and economic growth may differ depending on the development stage of the country concerned.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 배경

해외송금은 개발도상국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에 글로벌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이주 노동자의 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해외송금의 규모도 빠르게 증가해왔다. 즉, 최근 이주노동자들의 송금액이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규모보다 크고 상대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보다 변동성이 적다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해외송금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학자들과 정책당국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Yang, 2011). 그러나 해외송금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Spatafora(2005)는 실증분석을 통해 송금이 빈곤 감소에 기여한다고 제시한 반면, Barajas et al.(2009) 등은 송금 유입이 투자로 연계되지 않는 점, 노동시장 참여를 저해하는 점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는 해외송금의 유입이 해당국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해당국가의 경제구조나 제도적 차이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고려해 본 연구는 세계은행 등 국제 기구에서 제공하는 공식통계를 활용하여 동아시아 14 개국가로 구성된 패널자료를 구축해 해외송금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비대칭적 영향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첫째, 경제이론과 기존연구 검토에 기초해 해외송금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기본적인 분석모형을 구축한다. 둘째, 해외송금의 유입이 소득수준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동아시아 14 개 국가를 크게 선도국과 후발국으로 구분해 분석한다. 이때, 1인당 GDP 1만달러를 기준으로 선도국은 6개(한국, 일본, 싱가포르, 중국, 말레이시아, 브루나이)로 구성되고, 후발국은 8개(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태국)로 구성된다. 셋째, 해외송금이 소득수준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기존연구들은 대체로 이들 간의 선형관계를 가정하고 분석을 시도했다. 그러나 해외송금이 소득수준과 경제성장 간에는 비선형적 관련성이 예상된다. 경제발전

초기단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자본이 부족한 개도국에서 자본 증대에 큰 기여를 하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일정 수준으로 경제발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오히려 인플레이션 등을 야기함으로써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제 2 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다국적 기업의 진출이 심화되고, 국가간 인적자원의 교류도 자유로워지면서 해외송금은 개발도상국을 넘어 전세계에서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연구들은 해외송금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대칭적이라고 가정한 상황에서 분석을 시도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에서 제공하는 국가별 통계와 계량경제분석방법론을 이들 간의 비대칭적 효과를 검토하고자 한다. 해외 이주자가 본국에 보내는 송금은 그 형태에 있어 몇 가지 분류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Remittance)는 이주자의 해외 소득에서 본국으로 보내지는 화폐의 이체금액을 의미한다 (Ratha, 2004). 대부분의 관련 논문에서는 해외 이주가 송금의 의미를 더 좁은 의미로 해석하여 해외 이주자(Migrant) 중에서도 이주 노동자(Migrant worker)가 본국으로 송금하는 화폐 이체액만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으며, 난민이나 해외 불법체류자들의 송금액까지도 논의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Buch et al., 2002; Sørensen, 2004). 본 연구는 세계 주요국으로 구성된 패널자료를 이용해 해외송금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비대칭적 영향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경제이론과 기존연구 검토에 기초해 해외송금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들 간의 비선형성이 형성될 가능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한다. 또한 세계은행 등에서 제시된 공식통계를 활용하여 해외송금과 경제성장 간의 비대칭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국가별 발전단계에 따라 그 영향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가들을 분석을 시도한다. 구체적으로 소득수준 1만 달러를 기준으로 다국적 기업의 진출이 심화되고, 인적자원의 교류도 자유로워지면서 해외송금은 개발도상국을 넘어 전세계에서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계획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기존연구들에서 다루지 않았던 이들 간의 비선형을 확인한다는 측면에서 학술적으로도 매우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 동아시아로 연구범의를 제한한 이유는 동아시아 역시 다른 개발도상지역과 마찬가지로 대외자금 유입으로서 송금이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특히 동남아의 경우 송금의 규모는 전통적인 개발재원인 ODA 보다 크다. 1994 년부터 2010 년까지 공여는 37% 증가하였으나 해외송금은 680% 증가하였다(World Development Indicators). 또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인구의 약 20%는 출신지역이 동남아인데, 이는 중국동포를 제외할 경우 한국에 대한 최대 이주송출지역이기도 한다(오윤아 외 2012, p. 41). 이를 위해 연구의 지역적 범위로 동남아시아의 (ASEAN10), 중국, 일본, 한국, 몽골까지 선택하였다. ASEAN10 국가들은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이다. 한편, 몽골의 경우도 해외로 이주한 노동자가 매우 많은데, 이들은 해외에서 노동을 하고 받은 임금의 일부를 고국으로 보낸다. 특히 몽골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근로하는 인력이 많아 몽골로 유입되는 해외송금에 관한 실증분석을 세계은행 자료를 따르고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1 장에서는 해외송금이 경제성장에 어떻게 관련되는지 검토한 다양한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제 2 장에서는 Pooled LS 와 전통적인 패널모형에 대해 소개하고, 실증분석에 이용된 자료에 대해 설명한다. 제 3 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 4 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과 시사점, 그리고 연구의 한계를 살펴본다.

제 2 장 선행연구 검토

현재 국가 간에는 다양한 종류의 자본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동하고 실행한다. 이러한 자본의 이동은 국가의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지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지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결과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자본의 이동의 대표적인 변수들로는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및 해외로부터의 송금(Remittances)이 있다. 이러한 자본 관련 변수들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해외직접투자이다. 이러한 자본의 이동은 수여국의 입장에서도 경제에 긍정적인 것으로 여겨 장려하고 있는 입장이다. 하지만 Won, Young-Kul(2010)의 연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역에 따라서 해외직접투자는 효과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다. 그이 연구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해외로부터 직접투자는 경제성장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타났으니,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멕시코를 제외하고 오히려 이러한 자본이 유입이 경제성장에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Choi, Chang-Hwan(2015)의 연구에서도 남미 4 개국 중 2 개국은 해외직접투자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나머지 2 개국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원조 (ODA)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Suh, Woo-taek(2012)의 연구에서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의 3 개국가 ODA 와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ODA 가 국가별로 사이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또한 Lee, Kyeong-Ah and Ki-Seok Hong(2012)의 연구에서는 수여국의 수출 비중에 따라서 ODA 의 효과가 달라짐을 보여주고 있다.

해외송금은 고용을 창출하고 투자를 증진시켜 소득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Durand et al., 1996). 해외송금은 해당가계의 소비를 진작시켜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것은 바로 소비증가에 따른 소비승수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OECD, 2006). 해외송금과 금융 또는 자본시장의 발전에 관한 연구로는

아가왈 등(Aggarwal et al., 2006)이 대표적인데, 99 개 개도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GDP 대비 은행예금 및 신용비율과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aola and Ruiz-Arranz(2005)는 29 개 개발도상국의 1975~2002 년 기간 패널자료 사용하여 해외송금과 금융발전 그리고 경제성장에 관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해외송금은 금융발전이 미약한 개발도상국에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송금은 가난한 국가들의 신용구조의 완화와 금융발전의 부족을 지원 등의 효과를 통해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종하 외 2016, p124). 다수의 선행연구가 해외송금 유입이 빈곤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실증분석을 통해 보이고 있다. Adams and Page(2005)는 71 개 개도국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제이주, 송금, 빈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국제이주와 송금이 개도국의 빈곤 감소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patafora(2005)는 101 개국의 1970-2003 년 데이터를 분석하여 송금이 빈곤층의 기초소비(basic consumption)에 쓰이기 때문에 송금 유입이 인력송출국의 빈곤 감소에 기여한다고 주장하였다. Adams and Cuccuecha(2010, p. 20)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송금 수취하는 가구들은 그렇지 않은 가구들보다 빈곤율은 26.7% , 빈곤심도(poverty gap)는 69.9%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에 대한 연구에서 Yang and Martines 역시 송금이 수취가구의 빈곤율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하였다(이윤아 외 2014). 여러 선행연구에서 송금 유입이 이주자 가정의 교육 부문 지출확대, 재학률 (school retention rate) 상승 등을 통해 교육 부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Cardona-Sosa and Medina(2006)는 2003 년 콜롬비아의 가계 지출구조를 분석한 결과, 해외송금을 받는 가정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교육 부문에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Adams (2005)가 과테말라 가정의 국내 및 해외(미국) 송금 수입의 지출 행태에 대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송금을 받는 가정은 송금 수입의 상당 부분을 소비재를 구매하는 대신, 교육 부문에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Cox- Edwards and Ureta(2003)가 엘살바도르의 사례를 통해 해외 송금 유입이 이주자 가족의 재학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해송금이 다른 가구소득에 비해 자녀의 재학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금 유입은 교육뿐만 아니라 보건 지출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으로 이주한 멕시코인 가구를 대상으로 본국에 송금하는 이유를 항목별로 설문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의료비 항목이 약 46%로 1 위를, 다음으로는 식료품 구입비가 약 30%로 2 위를, 주택 건설 및 수리비가 약 7%로 3 위를 기록하였다(Mexican Migration Project 2004, 재인용: Amuedo-Dorantes and pozo 2004, p 49) , (오윤아 외 2014). Abel(2013), Faini(2007), Paola and Ruiz-Arranz(2005), Spatafor(2005) 등은 해외송금이 미약한 금융발전을 대체하거나 빈곤층의 소비 활성화 등에 영향을 미쳐 국가의 경제성장을 촉진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Paola and Ruiz-Arranz(2005)는 29 개 개발도상국의 1975-2002 년 기간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해외송금과 금융발전 그리고 경제성장에 관하여 실증분석했다. 분석결과 해외송금은 금융발전이 미약한 개발도상국에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송금은 가난한 국가들의 신용구조의 완화의 금융발전의 부족을 지원 등의 효과르 통해 경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재원으로 활용될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Giuliano and Ruiz-Arranz(2009)는 금융 부문이 상대적으로 덜 발달한 국가일수록 송금 유입이 경제성장을 촉진시킨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Abel(2013)은 1995 년-2009 년의 사하라이남 아프리카(SSA³) 32 개 국가들의 패널데이터를 이용해 국제송금이 국가 통화시스템의 크기에 영향을 미쳐 직·간접적으로 국가의 거시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서 송금의 가치를 명확히 찾아내기 위해서는 금융시스템의 발전과 제도적 구조의 향상이 중요함을 주장했다. 또한 Spatafora 는 101 개국의 1970-2003 년 동안 송금 유입과 경제성장 변동성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송금 유입이 거시경제의 안정성에 극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 Han(2016). 아래 연구에서는 송금이 경제경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국가, 기간 및 다양한 추정방식을 통해 송금이 국내 투자를 증가시키고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Acosta et al.(2007)은 10 개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LAC) 국가를 1970 년부터 2000 년까지 59 개 산업 및 개발 도상국에 대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했다. Pradan et al.(2008)은 39 개

개발도상국을 1980 년부터 2004 년까지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고정효과 추정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Mundace(2009)은 GMM 접근법을 사용하여 1970 년부터 2002 년까지 25LAC 국가의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했다. 송금이 경제성장 및 금융의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Fayissa , Nsiah(2010)는 1980 년부터 2004 년까지 아프리카 36 개 국가의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했다. 그들은 무작위 효과(RE), FE 및 Arellano-Bond(1991) GMM 접근 방법을 사용했다. Driffield, Jones(2013)는 1984 년부터 2007 년까지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 에 대한 FDI, 공적개발원조 및 이민자 송금의 효과를 평가하려고 한다. 분석 결과는 기관이 계정, 세 종류의 외국 자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Nsiah, Fayissa(2013)는 1985 년부터 2007 년까지 64 개 국가(아프리카 29 개국, 아시아 14 개국, LAC 지역 21 개국)의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패널 단위 루트 테스트, 공적분 테스트 및 OLS 추정 방식으로 분석했다. Goschin(2014)은 CEE 에서 1996 년부터 2011 년까지 10 개국에 대한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RE 및 FE 추정방식으로 분석했다. Abida, Zghidi(2015)는 1980 년부터 2012 년까지 북아프리카 4 개국(알제리, 이집트, 모로코, 튀니지)의 패널 데이터, 동적 패널 시스템 GMM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했다. Tahir et al.(2015)은 1977 년부터 2013 년까지 파키스탄의 시계열 데이터를 사용하여 ADLM(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Model)을 통해 분석했다. Yuan et al.(2016)은 PMG(pooled mean group) 방법을 사용하여 1985 년부터 2011 년까지 아시아 16 개국의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했다(Ralph Chami et al. 2008).

한편, 해외 송금이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축소시킬 경우 경제성장 에 역행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가난한 가정보다 상대적으로 부유한 가정에서 해외이주 또는 해외 노동자로 갈 경우 해외송금을 받은 보유한 기계는 노동을 축소시켜, 결과적으로 경제성장 에 역행하는 역할을 한다(Adams, 1998; Rofriguez, 1998). 해외송금이 농촌지역의 노동자들에게 전달될 경우도 관련 노동자들이 노동시간을 줄임에 따라 해외송금과 경제성장 간에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형성될 수 도 있다(Chami et al, 2003). 이러한 연구결과는 해외송금과 해외수입 간의 관계가 국가별로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이순철, 2019). 또한 Ginji(2013)은 CEE 의

12 개 선진국가들을 1996 년부터 2010 년까지 패널 데이터와 FE 모델을 사용하여 그들은 송금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판드(Pande, 2018)은 인도로 유입되는 해외송금을 주 별로 실증분석 없이 정리하였는데, 해외송금은 많은 주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나 시스템의 미비로 해외송금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2013 년 전세계 해외송금의 규모는 5,419 억 달러로 추정되며, 이 중 4,040 억 달러가 개발도상국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비공식경로를 통해 유입된 송금을 포함한다면 개도국에 유입되는 해외송금의 전체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고 있다(World Bank 2006a).¹⁾ 외환유입으로서의 해외송금은 다음 세 가지 특성을 가진다. 첫째는 규모가 크다. 전 세계적으로 해외송금 규모는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보다는 작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ODA 를 능가한다. 둘째,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는 ODA 와 비교되는데, 선진국 정부들의 재정부담 증가로 인해 ODA 규모는 2000 년대 이래 정체되고 있는데 반해, 개도국에 대한 해외송금 유입은 꾸준히 늘고 있다. 셋째, 유입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FDI 는 규모가 송금보다 일반적으로 월등히 크지만, 경기변동에 따라 그 변동성이 매우 높다. 일례로 2008 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2009 년 개발도상국에 대한 FDI 는 39.7% 감소하였지만, 송금은 5.2% 감소하는 데 그쳤다(Yang 2011, p 129). 무엇보다 해외송금이 외국인 직접투자인 FDI 순유입액보다 상대적으로 큰 격차를 보이면서 증가하고 있다. 1993 년 이전에는 해외송금이 FDI 순유입액보다 작았지만 그 이후부터는 해외송금 유입액이 크게 증가하여 FDI 순유입액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였다(이순철, 2019). 해외송금은 개도국에서는 가난한 수준과 더불어 절대적 빈곤 수준을 축소시키는 효과도 있다.²⁾ 송금(remittances)은 해외에 체류하는 국제이주자(international migrant)가 본국의 가족이나 친지에게 보내는 현물과 현금을 통틀어 지칭한다. 따라서 그 금액이 위에서 언급한 해외직접투자 및 공적원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되나, Kim, Hee-Soon(2019)의 연구에 따르면 라틴아메리카 일부국가의 경우 송금규모는 해외공적원조 또는

1) www.worldbank.org 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자료 활용

해외직접투자 규모를 넘는 경우도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최근 송금이 인력송출국의 빈곤 경감에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 Woo-Song Cho, Seung-Gyun Yoo(2020)의 연구의 결과를 따르면 자본이 유입은 경제 수준이 높은 국가와 낮은 국가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고,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두 그룹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원조의 경우 소득이 낮은 국가에서 부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적원조의 경우 해외로부터의 자금의 유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함을 나타내며, 송금의 경우 역시 해외로부터 송금은 건설적인 곳에 투입되기 보다는 단순한 소비지출에 사용되어 노동시장의 공급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 오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Lee, Soon-Cheul(2019)의 연구에서는 1980년대 이후 송금은 수출과 해외직접투자자와 함께 3대 외환수입원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세계 1위의 송금유입국인 인도를 연구대 상으로 하여 송금과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분석 하였다. Lee, Han(2016)의 연구에서는 65개 국가를 OECD와 비 OECD 국가로 구별하고 1995~2013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해외송금과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경제부분의 변수와 더불어 금융발전 정도를 이용한 제도적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고 경제발전수준이 높은 국가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발전수준이 낮은 국가의 송금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적 요인, 즉 금융발전 정도는 송금이 경제성장에 주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금은 기본적으로 해외체류 이주자가 본국에 있는 가족에게 보내는 자금이다. 송금동기는 미시적 수준에서 크게 세 가지로 설명되는데, 첫째는 본국의 가족에게 조건 없이 소득을 이전하고자 하는 이타적 동기 (Agarwal and Horowitz 2002)이고 둘째는 가족 내 위험분산 및 보험을 위한 동기(Lucas and Stark 1985),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적 동기(Lucas and Stark 1985)가 거론된다. 이 장에서는 해외송금의 개발효과에 대한 학술적 논의와 정책수준에서의 논의를 살펴본다.

해외 이주자가 본국에 보내는 송금은 그 형태에 있어 몇 가지 분류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송금(Remittance)은 이주자의 해외 소득에서 본국으로

보내지는 화폐의 이체금액을 의미한다 (Ratha, 2004). 대부분의 관련 논문에서는 해외 이주가 송금의 의미를 더 좁은 의미로 해석하여 해외 이주자(Migrant) 중에서도 이주 노동자(Migrant worker)가 본국으로 송금하는 화폐 이체액만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으며, 난민이나 해외 불법체류자들의 송금액까지도 논의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Buch et al., 2002; Sørensen, 2004). 이 장에서는 해외송금의 개발효과에 대한 학술적 논의와 정책수준에서의 논의를 살펴본다. Meyer and Shera (2013)는 송금이 다양한 거시경제학과 일부 경제의 발전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1992 년부터 2012 년까지 21 개 개발도상국의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송금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송금이 알바니아의 1 인당 국내생산(GDP)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송금액이 1% 증가하면 1 인당 GDP 가 0.1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인당 GDP 의 차이는 산업의 발달정도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어 해외직접 투자의 효과도 소득수준에 따라서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며, 공적원조의 경우에도 소득 높은 지역의 경우에는 단순소비로의 유입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송금의 경우도 소득이 낮은 그룹과 상대적으로 높은 그룹은 송금의 사용되는 용도에 따라서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는 결과가 다를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Woo-Sung Cho 2020, p 116). Beaton, K. Et al, (2017)의 2017 IMF working paper 는 라틴아메리카의 이민과 송금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우선 해외로부터의 송금은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동력의 유출은 국가경제 근원을 약화시킨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송금은 거시경제의 안정성에 도움을 주고, 불평등과 가난을 감소시키는 채널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즉, 현재 라틴아메리카 지역은 해외로부터의 자금의 유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자금의 유입은 해외직접투자, 공적원조 및 송금 등의 형태로 유입되고 직간접적인 또는 긍정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자본의 유입은 경제수준이 높은 국가와 낮은 국가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고,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두 그룹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원 조의 경우 소득이 낮은 국가에서 부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송금의 경우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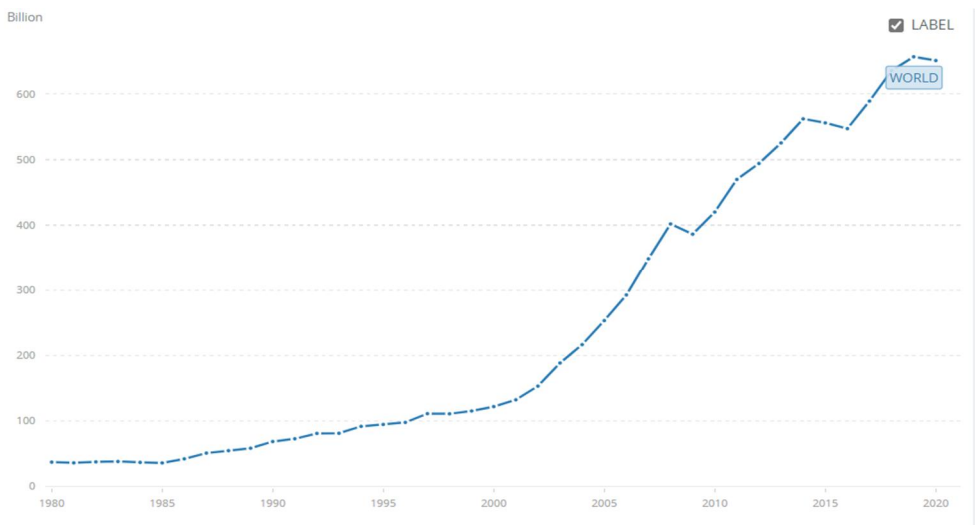
높은 소득의 그룹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적원조의 경우 해외로부터의 자금의 유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함을 나타내며, 송금의 경우 역시 해외로부터의 송금은 건설적인 곳에 투입되기 보다는 단순한 소비지출에 사용되어 노동시장의 공급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 오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Woo-Sung Cho 2020, Seung-Gyun Yoo p 117).

제 3 장 해외송금의 현황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0 년 전 세계 해외송금의 규모는 6,510 억 달러로 추정되며, 이 중 6,040 억 달러가 개발도상국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비공식경로를 통해 유입된 송금을 포함한다면 개도국에 유입되는 해외송금의 전체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고 있다(World Bank 2020a).

[그림 1] 개인송금 유입 규모 추이

(단위: US\$)



자료: World Bank [Personal remittances, received \(current US\\$\) | Data \(worldbank.org\)](https://data.worldbank.org/SH.UY.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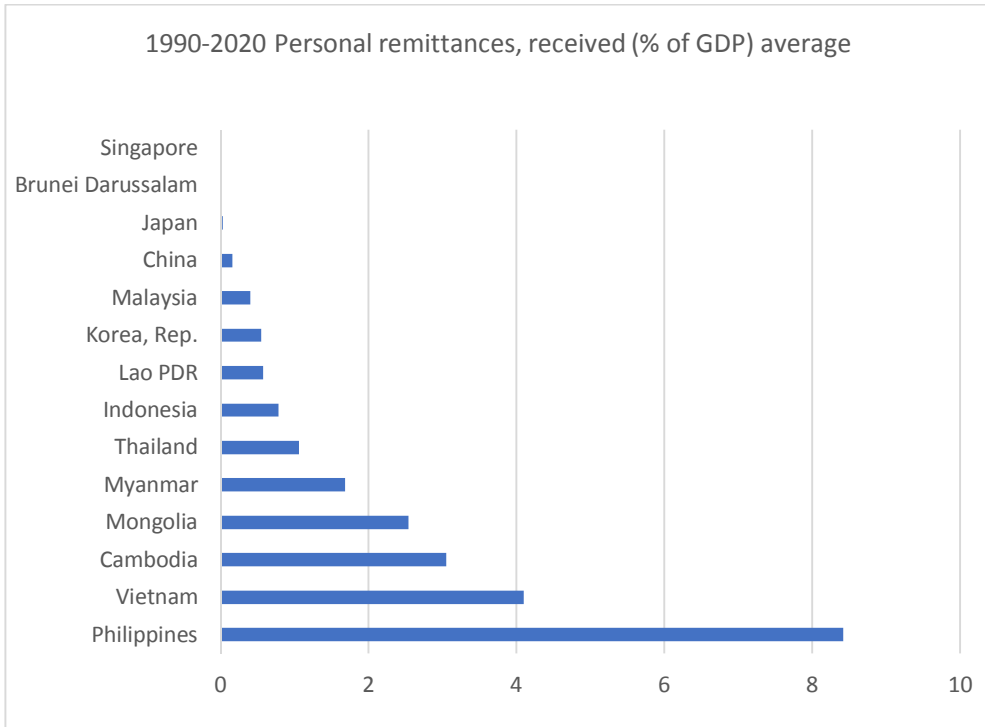
<표 1> 개도국으로 유입되는 해외 송금액

	1980	1990	2000	2010	2020
\$ bilions					
All delevoping countries	194	265	157	409	640
Eas asia and pacific	26	86	18	68	111
Europe and central Asia	19	34	44	134	178
Latin America and Caribbean	19	57	19	56	104
Middle-East and north Africa	65	10	11	38	58
South Asia	52	55	17	82	147
Sub-Saharan Africa	13	23	48	31	42
world	37	68	121	420	651

자료: Migration and Development Brief (Vol.19), Migration and Remittances Unit, World Bank

해외 이주 노동자가 본국으로 보내는 송금은 개도국 경제에 있어 중요한 외부
 재원의 원천이다. 위의 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10 년 통계에 의하면 해외 이주
 노동자가 본국으로 송금한 액수는 미화(US\$) 4 천 백억 달러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공식적으로 통계에 잡히는 수치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제
 송금액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 된다(Mohapatra, 2010).

[그림 2] 개인송금 유입 규모(% GDP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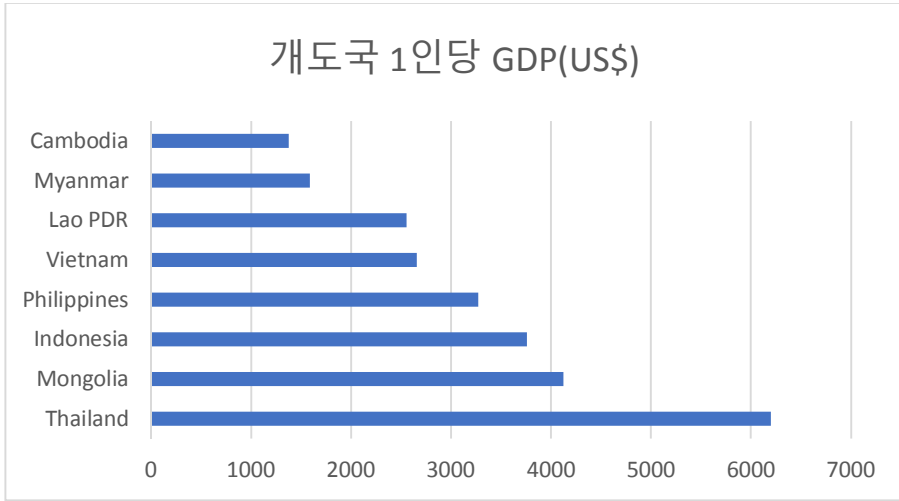
자료: World Bank(2022)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2]에서 보면 개도국과 선진국으로 가입된 송금액을 볼 수 있다. 개발도상국으로 가입된 송금액을 살펴보면 1990년부터 2020년까지 베트남이 4.10% 가까이 있었는데 필리핀이 8.42% 가까이, 베트남보다 2 배나 많이 차지하였다. [그림 2]에서 보다시피 제일 작게 차지하는 나라는 싱가포르이다. [그림 2]에서 보면 개발도상국으로 가입된 송금액이 선진국으로 가입된 송금액보다 더 많았는데 실제로 싱가포르, 한국, 일본, 브로네이, 마라시아, 중국 등의 1 인당 GDP 가 개발도상국 보다 높다고 나타났다.

한편 해외송금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선진국과 개도국이 다를 수 있다. 선진국은 이미 발전했기 때문에 해외송금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데 개발도상국에서는 자본이 부족해서 해외송금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선진국과 개도국이 영향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구분해서 분석한다. 구분 기준은 1 만달러를 기준으로 구분했다. 국가들을 보면 [그림 3] 과 같이 개도국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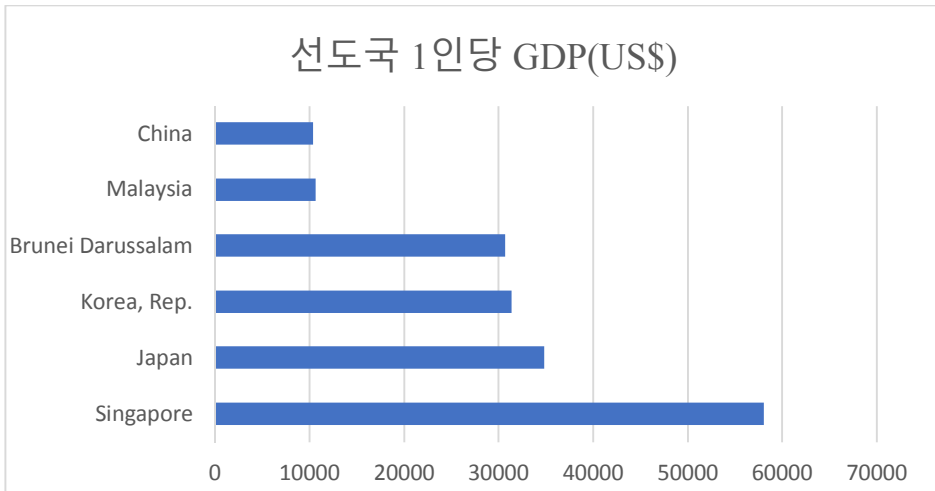
태국, 몽골,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으로 구분이 된다. [그림 4]와 같이 선도도국들은 싱가포르, 한국, 일본, 브루나이, 말레이이시아, 중국 등으로 구분이 된다.

[그림 3] 개도국 1인당 GDP



자료: World Bank(2022)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4] 선도국 1인당 GDP



자료: World Bank(2022)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제 4 장 연구자료 및 방법론

제 1 절 연구자료

본 연구는 동아시아 14 국가의 1990-2020 년 기간의 연간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해외송금의 유입이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대칭적이라고 가정한 상황에서 분석을 시도한다. 즉 본 연구는 해외송금과 경제성장 간의 연계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작업은 해외송금과 경제성장 사이의 관계 있어 경제적 요인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자료를 선택하는 것이다. 먼저 본 연구는 동아시아 국가 중 자료가 가용한 14 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전체국가의 모든 변수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수집할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본 논문은 불균형패널자료(unbalanced panel data)의 구조를 갖는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경제적 변수의 데이터는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제공하는 WDI(World Development Indicators,2022)를 통해 확보했다. 변수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4>에 제시했다. 또한 변수의 기초통계량 및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요약은 <표 2>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이를 위해 연구의 지역적 범위로 동남아시아의 (ASEAN10), 중국, 일본, 한국, 몽골까지 선택하였다. ASEAN10 국가들은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해외송금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GDP-개발 모형을 채택했다. 추정된 Pooled LS 모델은 해외송금에서 비대칭의 존재를 확인한다.

<표 2> 변수들의 기초통계량

변수명	평균	중간값	최대값	최소값	표준편차	관측치
경제성장률	4.53	4.73	15.15	-14.35	3.53	254
1인당 GDP	7357.24	3004.38	61173.90	388.28	10603.70	254
투자	29.96	29.77	58.15	13.41	8.06	254
교육	33.71	28.59	104.27	1.26	25.27	254
개방	75.41	59.21	355.30	8.52	55.65	254
물가	5.18	3.85	58.45	-1.71	5.79	254
해외송금	2.07	0.76	12.78	0.00	2.90	254

주: 1) 관측치는 31 개 연도(1990-2020 년) 임.

2) 전체국가 14 개 국가 중 개도국은 8 개, 선도국은 6 개 국가로 구분.

<표 3>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변수명	경제 성장률	1인당 GDP	투자	교육	개방	물가	해외송금
경제성장률	1						
1인당 GDP	-0.21	1					
투자	0.47	0.05	1				
교육	-0.20	0.71	0.12	1			
개방	-0.08	0.36	-0.17	0.30	1		
물가	-0.13	-0.29	0.06	-0.22	-0.17	1	
해외송금	-0.05	-0.29	-0.30	-0.10	0.06	0.08	1

제 2 절 변수의 설명

경제성장과 해외자본의 유입에 관한 변수와 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우선 경제성장을 대표하는 변수로는 국가별 1 인당 GDP 와 1 인당 GDP 성장률을 사용하였다. 이는 국가의 경제의 부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 전체 데이터를 사용한다면 동아시아국가의 특성상 인구 규모의 차이에 의하여 잘사는 국가와 못사는 국가로 분류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다. 즉 국가의 경제적□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여 이 각각의 요인들이 해외송금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세부적으로 분석한다. 본 논문에서 설명변수로 설정한 경제적 요인들은 Barajas et al.(2009), Paola Giuliano and Marta Ruiz-Arranz(2005) 등이 제시한 바와 같이 초기의 경 제규모²⁾ 인적자본, 물적자본, 교육, 무역개방도³⁾, 인플레이션 등의 변수를 사용한다. 구체적으로 해외송금 변수는 GDP 대비 해외송금(remittance)의 비율로 사용했고, 물적자본에 대한 대리변수(proxy variable)로는 총고정자본형성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을 사용했다. 또한 무역개방도 변수로 GDP 대비 총교역량을 사용하고, 인적자본에 대한 변수로는 중등교육진학률을, 거시경제 안정성 변수로는 인플레이션율을 각각 사용했다. 한편 종속변수인 경제성장률 변수는 1 인당 GDP 와 1 인당 실질 GDP 의 증가율을 사용한다.

-
- 2) 경제규모 크고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 국가일수록 새로운 투자에 대한 한계생산성이 줄인다. 따라서 초기의 경제규모는 향후 경제성장에 음(-)의 관계를 형성하나다고 알려져 있다.
 - 3) 한 국가가 무역개방도를 증가시킬수록 비교우위를 통한 특화, 외국과의 무역을 통한 새로운 기술의 습득, 더 큰 시장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 등을 통해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

<표 4> 변수의 설명

변수명		내용	출처
종속 변수	경제성장률	1 인당 GDP 1 인당 GDP 의 증가율	World Development Indicator(WDI), World Bank
설명 변수	물적자본	GDP 대비 총고정자본형성 비율(%)	WDI
	인적자본	중등교육 등록율(% gross)	WDI
	무역개방도	수출+수입/GDP*100(%)	WDI
	물가상승률	인플레이션율(annual %)	WDI
	해외송금유입	GDP 대비 1 인당 공식 해외송금 수취금액(%)	WDI

자료: World Bank

제 3 절 연구 추정모형

본 연구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해외송금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성장-개발 모형을 채택했다. 해외송금과 경제성장 상관관계를 연구한 Paola and Ruiz-Arranz(2005)의 모형을 기반으로 한 기본 추정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기본 추정방식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GDPP_{it} = c_1 + a_1 Rem_{it} + a_2 Rem_{it}^2 + \sum_{k=1}^4 \beta_k X_{ikt} + \epsilon_{it} \quad (식 1)$$

$$Growth_{it} = c_1 + a_1 Rem_{it} + a_2 Rem_{it}^2 + \sum_{k=1}^4 \beta_k X_{ikt} + \epsilon_{it}$$

본 연구는 식(1)의 추정식을 이용하여 14 개 동아시아 국가들의 해외송금과 경제성장 간의 비대칭적 관계를 분석한다. 식(1)에서 종속변수인 $Growth_{it}$ 는 (PGDPP, PGDPG) 1 인당 실질 GDP 의 증가율과 1 인당 실질 GDP 를, Rem 은 해외송금 변수이다. E 는 Rem 을 제외한 경제적 요인을 나타내는 설명변수로서 투자, 교육, 개방도, 인플레이션으로 구성된다. 하첨자 i 는 국가, t 는 연도, c 는 상수항, α_1, α_2 는 각각 경제성장의 초기값, 해외송금변수(R) 값을 의미한다. $B_k(k=1,2,3,4)$ 는 Rem 를 제외한 추정된 설명변수들의 계수 값, ϵ 는 오차항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세계은행의 자료를 연도별로 연결한 패널자료를 활용한다. 패널자료는 기본적으로 통합 최소제곱법(pooled least square)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통합 최소제곱법은 관측자료의 범주별 관측되지 않은 고요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녀 추정된 계수에 편의(bias)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개별 범주의 고유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 model)과 임의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고정효과모형과 임의효과모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정효과모형은 패널모형의 오차항이 $U=U_i+\epsilon$ 일 때 개체별 효과를 의미하는 U_i 가 독립변수와 상관이 있는 경우 사용하며, 임의효과모형은 U_i 가 독립변수와 상관이 없을 때 사용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고정효과 모형 추정모형에 기초한다. 식(1)의 기본 모형에 패널의 특성을 반영하는 관측되지 않은 국가(μ) 및 연도(δ) 의 효과를 고려하면, 다음의 식(2)와 같다. 이때 고정효과(fixed) 모형과 임의효과(random) 모형 중에서 어떤 모형이 적합한지 선정하기 위해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를 실시한다. 고정효과모형과 임의효과모형의 선택은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통계량을 제공하는 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GDPP_{it} = c_1 + \alpha_1 Rem_{it} + \alpha_2 Rem_{it}^2 + \sum_{k=1}^4 \beta_k E_{ikt} + \mu_i + \delta_t + \epsilon_{it} \quad (\text{식 2})$$

$$Growth_{it} = c_1 + \alpha_1 Rem_{it} + \alpha_2 Rem_{it}^2 + \sum_{k=1}^4 \beta_k E_{ikt} + \mu_i + \delta_t + \epsilon_{it}$$

식(2)에서 관측되지 않은 국가(μ) 및 연도(δ)의 효과를 제외하면, 나머지 표기는 식(1)의 경우와 동일하다. 식(2)에서 종속변수인 $GDPP_{it}$ 는 (PGDPP) 1인당 실질 GDP를, Rem 은 해외송금 변수이다. E 는 Rem 을 제외한 경제적 요인을 나타내는 설명변수로서 투자, 교육, 개방도, 인플레이션으로 구성된다. 하첨자 i 는 국가, t 는 연도, c 는 상수항, α_1, α_2 는 각각 경제성장의 초기값, 해외송금변수(Rem) 값을 의미한다. $B_k(k=1,2,3,4)$ 는 Rem 를 제외한 추정된 설명변수들의 계수 값, ϵ 는 오차항을 의미한다.

한편 해외송금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발전 초기에는 긍정적인 수 있으며 일정 수준 발전 증가하면 경제성장에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이러한 비선형적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비선형 분석을 추가적으로 시도한다.

제 5 장 실증분석 결과

제 1 절 전체 국가

(1) 소득 수준에 대한 분석

Pooled LS 를 사용해 식(1)을 추정한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 5>에서 모형 1 은 해외 송금을 제외하고 설명변수들을 고려했으며, 모형 2 는 모형 1 의 변수들과 설명변수 해외송금을, 모형 3 은 모형 2 와 같으나 또 해외송금 변수를 고려하여 1 인당 GDP 를 종속변수로 고려하여 설명변수에 포함했다. 이와 같이 동일한 종속변수에 대해 다른 변수를(1 인당 GDP 성장률) 추가하여 추정한 이유는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가 작용하는지 검토하기 위해서다.

<표 5>의 실증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해외송금은 모형 2, 모형 3 에서 보면 경제성장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니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동아시아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해외송금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변수 중 모든 모형에서 인플레이션이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송금이 경제성장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해외송금과 경제성장 그리고 금융의 발전을 고려하여 실증분석한 Dzansi(2013), Esman(2012) 등과 다소 상이한 결과이다. 그러나 설명변수를 반영한 대부분의 변수들은 선행연구의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투자의 증가는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며 교육상승률이 높을수록 그리고 무역개방도가 높을수록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일반적 이론에 부합되는 실증분석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상의 결과가 추정방법에 관계없이 강건하게(Robust) 나타나는지 검토하기 위해 동아시아 국가들의 특징을 고려한 식(2)의 추정결과는 <표 5>의 모형 4~9 에 제시되어 있다. Fixed 모형을 추정한 모형 4 는 해외 송금을 제외하고 설명변수들을 고려했으며, 모형 5 는 모형 4 의 변수들과 설명변수 해외송금을 추가했고, 모형 6 은 모형 5 와 같으나 또 해외송금 변수를 고려하여 추정하였다. 또한 Random 모형을 추정한 모형 7 는 해외 송금을 제외하고 설명변수들을 고려했으며, 모형 8 는 모형 7 의 변수들과 설명변수

해외송금을 추가했고, 모형 9은 모형 8와 같으나 또 해외송금 변수를 고려하여 추정했다. 모형 7~9 까지 각 모형의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 결과에 의하면 모든 모형은 귀무가설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Fixed 모형이 적절한 추정방법으로 선택했다. <표 5>의 Fixed 하고 Random 모형의 실증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해외송금은 모형 5,6 와 모형 8,9 에서 보면 경제성장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니 해외송금이 경제성장을 높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5>의 모형의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Pooled LS 모형 2,3 에서 해외송금은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 미친다고 나타났고, 대체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그 외의 인플레이션을 제외하고 모든 설명변수들의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xed 하고 Random 해외송금은 모든 모형에서 경제성장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체로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즉 동아시아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Fixed 하고 Random 모형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해외송금이 경제성장을 진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인플레이션을 제외 모든 설명변수는 경제성장에 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ooled LS 모형에 비해 국가의 고유한 특성만을 고려한 분석인 Fixed 와 Random 모형의 분석결과가 전체적으로 추정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개선되었다. 특히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해외송금과 경제성장 그리고 금융의 발전을 고려하여 실증 분석한 Dransi(2013), Esman(2012), Giuliano and Ruiz-Arranz(2005) 등의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국가별 특성을 고려한다면 해외송금의 증가가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 전체 국가 1 인당 GDP 의 Pooled LS 와 Fixed, Random 모형 추정 결과

변수명	Pooled LS			Fixed			Random		
	None 모형1	Rem 모형2	Rem ² 모형3	None 모형4	Rem 모형5	Rem ² 모형6	None 모형7	Rem 모형8	Rem ² 모형9
상수항	7.408*** (0.214)	7.063*** (0.197)	7.086*** (0.188)	7.459*** (0.062)	6.867*** (0.101)	6.856*** (0.102)	7.464*** (0.212)	7.016*** (0.205)	7.003*** (0.192)
CAP (투자)	0.000*** (0.007)	0.010*** (0.005)	0.013*** (0.005)	0.004*** (0.002)	0.014*** (0.002)	0.013*** (0.002)	0.004*** (0.002)	0.014*** (0.002)	0.014*** (0.003)
EDU (교육수준)	0.027*** (0.001)	0.031*** (0.001)	0.030*** (0.001)	0.019** (0.001)	0.021*** (0.001)	0.021*** (0.001)	0.019*** (0.001)	0.021*** (0.001)	0.021*** (0.001)
OPEN (무역개방)	0.002*** (0.000)	0.001*** (0.000)	0.002*** (0.000)	0.002*** (0.000)	0.002*** (0.000)	0.002*** (0.000)	0.002*** (0.000)	0.002*** (0.000)	0.002*** (0.001)
INF (물가수준)	-0.008*** (0.005)	-0.025*** (0.008)	-0.017*** (0.007)	0.000*** (0.000)	-0.004*** (0.002)	-0.004*** (0.002)	0.000*** (0.000)	-0.005*** (0.002)	-0.005*** (0.003)
REM (해외송금유입)		-0.092*** (0.001)	-0.384** (0.024)		0.024*** (0.008)	0.056*** (0.022)		0.019*** (0.009)	0.030*** (0.020)
REM ² (해외송금유입 제곱)			0.030*** (0.002)			-0.002*** (0.001)			-0.001*** (0.001)
R ²	0.374***	0.743***	0.803***	0.973***	0.975***	0.975***	0.691***	0.775***	0.769***
관측치	289	254	254	289	254	254	289	254	254
Hausman 검정	-	-	-	6.245*** [0.181]	24.131*** [0.000]	40.478*** [0.000]	6.245*** [0.181]	24.131*** [0.000]	40.478*** [0.000]

주: 1) *, **, ***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2) () 안은 표준오차이며, []는 P-value 임

(2) 경제성장률에 대한 분석

Pooled LS 를 사용해 식(1)을 추정한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표 6>에서 모형 1 은 해외송금하고 인플레이션을 제외하여 설명변수들을 고려했으며, 모형 2 는 모형 1 의 변수들과 설명변수 해외송금을, 모형 3 은 모형 2 와 같으나 또 해외송금 변수를 고려하여 1 인당 GDP 성장률을 종속변수로 고려하여 설명변수에 포함했다. <표 6>의 실증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해외송금은 모형 2, 모형 3 에서 보면 경제성장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즉 개달도상국들을 대상으로 고정효과모형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해외송금이 경제성장을 진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변수 중 모든 모형에서 교육상승률이 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송금이 경제성장에 양(+) 영향을 미치는 것은 도덕적 해이(Mozard hazard) 등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 교육상승률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경제성장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어 해외송금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설명변수를 반영한 투자의 증가는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며 무역개방도가 높을수록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일반적 이론에 부합되는 실증분석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상의 결과가 추정방법에 관계없이 강건하게(Robust) 나타나는지 검토하기 위해 동아시아 국가들의 특징을 고려한 식(2)의 추정결과는 <표 5>의 모형 4~9 에 제시되어 있다. Fixed 모형을 추정한 모형 4 는 해외송금하고 인플레이션을 제외하고 설명변수들을 고려했으며, 모형 5 는 모형 4 의 변수들과 설명변수 해외송금을 추가했고, 모형 6 은 모형 5 와 같으나 또 해외송금 변수를 고려하여 추정하였다. 또한 Random 모형을 추정한 모형 7 는 해외송금하고 인플레이션을 제외하고 설명변수들을 고려했으며, 모형 8 는 모형 7 의 변수들과 설명변수 해외송금을 추가했고, 모형 9 은 모형 8 와 같으나 또 해외송금 변수를 고려하여

추정했다. 모형 7~9 까지 각 모형의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 결과에 의하면 모든 모형은 귀무가설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Fixed 모형의 적절한 추정방법으로 선택했다. <표 6>의 Fixed 하고 Random 모형의 실증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해외송금은 모형 5,6 모형 8,9 에서 보면 경제성장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동아시아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해외송금이 경제성장을 높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결과는 금융발전이 낙후된 지역에서 해외송금이 경제성장 효과가 크다고 주장한 Giuliana and Riuz-Arranz(2005,2009)의 실증분석 결과와 매우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Adams and Page(2005)등에 따르면 개발도상국가에서 해외송금의 유입은 가계의 소득 및 소비를 증가시켜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Esman et al.(2012) 등은 아프리카 지역 등의 개발도상국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증분석 토대로 해외송금은 금융시장을 대체하여 부족한 자본유동성을 개선시킴으로써 투자를 활성화시켜 국가 경제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추정한 바 있다. 즉, 개발도상국가에서 해외송금의 증가는 국민소득 향상과 경제규모의 증가로 이어져 금융부문의 발전에 기여할 여지가 크며, 이는 다시 경제성장 촉진으로 이어지는 순환효과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설명변수 중 모든 모형에서 1 인당 GDP 와 교육상승률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어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이종하 et al.(2016) 등의 연구에서 분석한 OECD 가입국가들의 실증분석 결과와 선행연구에서 분석한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표 6>의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Pooled LS 모형 2, 모형 3 에서 해외송금은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고, 대체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그 외의 교육수준 제외 모든 설명변수는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xed 하고 Random 모형의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해외송금은 모든 모형에서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체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그 외의 교육상승률을 제외하고 투자와 무역개방도가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ooled LS 모형에 비해 국가의 고유한 특성만을 고려한 분석인 Fixed 와 Random 모형의 분석결과가 전체적으로 추정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개선되었다. 따라서 국가별 특성을 고려한다면 해외송금의 증가가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 전체 국가 1 인당 GDP 성장률의 Pooled LS 와 Fixed, Random 모형 추정 결과

변수명	Pooled LS			Fixed			Random		
	None 모형1	Rem 모형2	Rem ² 모형3	None 모형4	Rem 모형5	Rem ² 모형6	None 모형7	Rem 모형8	Rem ² 모형9
상수항	-2.790*** (1.563)	-4.066*** (2.494)	-4.059*** (2.494)	-1.884*** (1.566)	-3.990*** (2.620)	-4.109*** (2.699)	-0.127*** (2.015)	-4.163*** (2.957)	-4.214*** (3.055)
CAP (투자)	0.247*** (0.040)	0.291*** (0.058)	0.292*** (0.059)	0.196*** (0.034)	0.249*** (0.049)	0.245*** (0.047)	0.216*** (0.042)	0.282*** (0.065)	0.280*** (0.065)
EDU (교육수준)	-0.027*** (0.005)	-0.036*** (0.006)	-0.036*** (0.006)	-0.039** (0.020)	-0.068*** (0.015)	-0.068*** (0.015)	-0.032*** (0.009)	-0.041*** (0.009)	-0.042*** (0.010)
OPEN (무역개방)	0.003*** (0.003)	0.007*** (0.002)	0.002*** (0.000)	0.016*** (0.010)	0.028*** (0.011)	0.026*** (0.010)	0.008*** (0.004)	0.011*** (0.003)	0.011*** (0.003)
REM (해외송금유입)		0.169*** (0.092)	0.136** (0.167)		0.520*** (0.223)	0.918*** (0.943)		0.256*** (0.121)	0.349*** (0.306)
REM ² (해외송금유입 제곱)			0.003*** (0.014)			-0.033*** (0.063)			-0.007*** (0.022)
R ²	0.195***	0.266***	0.266***	0.317***	0.348***	0.350***	0.128***	0.216***	0.212***
관측치	299	255	255	299	255	255	299	255	255
Hausman 검정	-	-	-	1.968*** [0.548]	8.854 [0.064]	9.196*** [0.101]	1.968*** [0.578]	8.854*** [0.064]	9.196*** [0.101]

주: 1) *, **, ***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2) () 안은 표준오차이며, []는 P-value 임

제 2 절 개도국과 선도도국

(1) 소득수준과 경제성장률에 대한 분석: 개도국

<표 7>, <표 8>를 살펴보면 몽골,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개도국 경우에는 해외송금이 경제성장에 양(+)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1인당 GDP에 도움이 된다. <표 6>의 1인당 GDP 분석결과를 보면 모형 4, 모형 7를 제외하고 인플레이션이 음(-)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되어 선행연수들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7>의 1인당 GDP 성장률에 해외송금이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으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동아시아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해외송금이 경제성장을 높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결과는 금융발전이 낙후된 지역에서 해외송금이 경제성장 효과가 크다고 주장한 Giuliana and Riuz-Arranz(2005,2009)의 실증분석 결과와 매우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Adams and Page(2005)등에 따르면 개발도상국가에서 해외송금의 유입은 가계의 소득 및 소비를 증가시켜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게 된다. 설명변수 중 모든 모형에서 교육수준은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어 선행연수들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이종하 et al.(2016) 등의 연구에서 분석한 OECD 가입국가들의 실증분석 결과와 선행연구에서 분석한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표 7> 1인당 GDP의 고정효과(Fixed) 모형 추정 결과: 개도국

변수명		Fixed		
		None 모형 4	Rem 모형 5	Rem ² 모형 6
상수항		6.771*** (0.068)	6.928*** (0.055)	6.653*** (0.079)
설명변수	CAP(투자)	0.003*** (0.002)	0.006*** (0.002)	0.004*** (0.001)
	EDU(교육수준)	0.019** (0.002)	0.017*** (0.001)	0.016*** (0.002)
	OPEN(대외무역개방)	0.004*** (0.000)	0.003*** (0.000)	0.003*** (0.000)
	INF(물가수준)	0.000*** (0.000)	-0.002*** (0.001)	-0.002*** (0.001)
	REM(해외송금유입)		0.009*** (0.006)	0.063*** (0.021)
	REM ²			-0.003*** (0.001)
R2		0.973***	0.968***	0.963***
관측치		160	151	151
Hausman 검정		16.360*** [0.002]	3.518*** [0.741]	4.347*** [0.628]

주: 1) *, **, ***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2) () 안은 표준오차이며, []는 P-value 임

<표 8> 1 인당 GDP 성장률의 고정효과(Fixed) 모형 추정 결과: 개도국

변수명		Fixed		
		None 모형 4	Rem 모형 5	Rem ² 모형 6
상수항		-4.593*** (1.657)	-5.401** (2.864)	-5.554*** (3.027)
설명변수	CAP(투자)	0.265*** (0.045)	0.267*** (0.059)	0.261*** (0.054)
	EDU(교육수준)	0.045*** (0.059)	-0.063*** (0.049)	-0.069*** (0.058)
	OPEN(대외무역개방)	-0.000*** (0.018)	0.027*** (0.016)	0.026*** (0.015)
	REM(해외송금유입)		0.513*** (0.214)	0.888*** (0.972)
	REM ²			-0.031*** (0.066)
R2		0.204***	0.244***	0.247***
관측치		170	152	152
Hausman 검정		1.968 [0.578]	8.854 [0.064]	9.196*** [0.101]

주: 1) *,**,***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2) () 안은 표준오차이며, []는 P-value 임

(2) 소득수준과 경제성장률에 대한 분석: 선도국

<표 9> 를 살펴보면 인플레이션을 제외하고 모든 설명변수들의 경제성장률에 극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송금은 모든 모형에서 경제성장률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체로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표 9>를 살펴보면 설명변수 중 교육상승률과 무역개방도가 경제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표 10>를 살펴보면 싱가포르, 일본, 한국,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중국 등 선진국가(6)의 추정된 결과를 보면 개도국에서 대립적으로 나타났다. 선진국가들의 경우 해외송금은 경제성장률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ixed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해외송금이 경제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추정한 Chami et al.(2005)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표 9> 1인당 GDP의 고정효과(Fixed) 모형 추정 결과: 선도국

변수명		Fixed		
		None 모형 4	Rem 모형 5	Rem ² 모형 6
상수항		6.771*** (0.068)	6.928*** (0.055)	6.653*** (0.079)
실업률변수	CAP(투자)	0.003*** (0.002)	0.006*** (0.002)	0.004*** (0.001)
	EDU(교육수준)	0.019** (0.002)	0.017*** (0.001)	0.016*** (0.002)
	OPEN(대외무역개방)	0.004*** (0.000)	0.003*** (0.000)	0.003*** (0.000)
	INF(물가수준)	0.000*** (0.000)	-0.002*** (0.001)	-0.002*** (0.001)
	REM(해외송금유입)		0.009*** (0.006)	0.063*** (0.021)
	REM ²			-0.003*** (0.001)
R2		0.973***	0.968***	0.963***
관측치		160	151	151
Hausman 검정		16.360 [0.002]	3.518*** [0.741]	4.347*** [0.628]

주: 1) *, **, ***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2) () 안은 표준오차이며, []는 P-value 임

<표 10> 1인당 GDP 성장률의 고정효과(Fixed) 모형 추정 결과: 선도국

변수명		Fixed		
		None 모형 4	Rem 모형 5	Rem ² 모형 6
상수항		3.796*** (1.957)	-0.536** (3.286)	-1.837*** (3.157)
설명변수	CAP(투자)	0.078*** (0.035)	0.200*** (0.063)	0.181*** (0.050)
	EDU(교육수준)	-0.070*** (0.010)	-0.069*** (0.012)	-0.085*** (0.013)
	OPEN(대외무역개방)	-0.005*** (0.014)	0.021*** (0.019)	0.012*** (0.014)
	REM(해외송금유입)		0.464*** (1.814)	18.880*** (6.746)
	REM ²			-15.973*** (5.181)
R2		0.627***	0.561***	0.630***
관측치		129	103	103
Hausman 검정		17.958 [0.000]	0.887 [0.926]	29.957*** [0.000]

주: 1) *, **, *** 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2) () 안은 표준오차이며, []는 P-value 임

제 6 장 결론

본 연구는 동아시아 14 국가의 1990-2020 년 기간의 연간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해외송금의 유입이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비대칭적이라고 가정한 상황에서 분석을 시도한다. 즉 본 연구는 해외송금과 경제성장 간의 연계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작업은 해외송금과 경제성장 사이의 관계 있어 경제적 요인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자료를 선택하는 것이다. 먼저 본 연구는 동아시아 국가 중 자료가 가용한 14 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전체국가의 모든 변수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수집할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본 논문은 불균형패널자료(unbalanced panel data)의 구조를 갖는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경제적 요인 변수의 데이터는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제공하는 WDI(World Development Indicators,2022)를 통해 확보했다. 이를 위해 연구의 지역적 범위로 동아시아의 (ASEAN10), 중국, 일본, 한국, 몽골까지 선택하였다. ASEAN10 국가들은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이다. 실증분석결과에서 나타났듯이 동아시아에서 송금은 국가의 빈곤수준을 감소시키고 투자를 증진시키나 그 효과는 다른 개도국과 차이가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동아시아의 국가들을 전체 국가들, 개도국과 선도국으로 구별해서 추가적으로 분석을 시도했다. 실증분석 결과는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해외송금이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개도국과 선도국 경우에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즉, 1 만달러를 기준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을 구분해서 살펴본 결과, 개도국은 해외송금이 1 인당 GDP 의 증가와 경제성장률의 상승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선도국의 경우에는 해외송금이 경제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해외송금이 소득수준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해당국가의 발전단계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실증분석결과와 그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국가들의 1 인당 GDP 와 1 인당 GDP 성장률을 종속변수로 분석한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Pooled LS 모형에서 해외송금은 경제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그 외의 인플레이션을 제외하고 모든 설명변수들의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시아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Fixed 하고 Random 모형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해외송금이 경제성장을 진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인플레이션을 제외 모든 설명변수는 경제성장에 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ooled LS 모형에 비해 국가의 고유한 특성만을 고려한 분석인 Fixed 와 Random 모형의 분석결과가 전체적으로 추정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개선되었다. 특히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해외송금과 경제성장 그리고 금융의 발전을 고려하여 실증 분석한 Dransi(2013), Esman(2012), Giuliano and Ruiz-Arranz(2005) 등의 주장한 바와 같이 동아시아 전체 국가들의 경우 해외송금이 증가가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서 해외송금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해외송금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선진국과 개도국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만달러를 기준으로 구분해서 분석한 개도국을 살펴보면 몽골,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경우에는 해외송금이 경제성장에 양(+)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1 인당 GDP 에 도움이 된다. 개도국의 1 인당 GDP 분석결과에서 모형 4, 모형 7 를 제외하고 인플레이션이 음(-)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되어 선행연수들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1 인당 GDP 성장률에 해외송금이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으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동아시아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해외송금이 경제성장을 높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결과는 금융발전이 낙후된 지역에서 해외송금이 경제성장 효과가 크다고 주장한 Giuliana and Riuz-Arranz(2005,2009)의 실증분석 결과와 매우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Adams and Page(2005)등에 따르면 개발도상국가에서 해외송금의 유입은 가계의 소득 및 소비를 증가시켜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게 된다. 설명변수 중 모든 모형에서 교육수준은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어 선행연수들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이종하 et al.(2016) 등의 연구에서 분석한

OECD 가입국가들의 실증분석 결과와 선행연구에서 분석한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셋째, 선도국의 결과를 살펴보면 싱가포르, 일본, 한국,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중국 등이 개도국에서 대립적으로 나타났다. 선진국가들의 경우 해외송금은 경제성장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ixed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해외송금이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추정한 Chami et al.(2005)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이러한 의미있는 결과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동아시아 14 개 개도국으로 분석하였으며, 동아시아 국가들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못하였다. 둘째, 설명변수로 물적자본, 인적자본, 무역개방도, 물가상승률, 해외송금유입 등을 고려해서 분석했으며, 다른 경제 요인들을 추가해서 분석을 못하였다.

참고문헌

- 오윤아, 이용, 신민금, 박나라, 김유미, 2014, “동남아 해외송금의 개발효과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이종하, 한선희, 2016, “해외송금과 경제성장의 관계 분석: 금융 발전 중심으로”, [재정정책논집], 18 권 4 호, pp.127~139
- Choi, Chang-Hwan, 2015, “The Impact of ODA FDI Trade on the South America"s Economic Growth : Comparative analysis of 4 countries”,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17(3), pp.115-130.
- Suh, Woo-taek, 2012, “An Empirical Analysis fo the Effects of ODA on the Economic Growth of Developing Countries –with a Focus on Indonesia, the Philippines and Vietnam- ”, wInternational Developing and Cooperation review, 4(1), pp.57-87.
- Ralph Chami, Adolfo Bajaras, Thomas Cosimano, Connel Fullenkamp, Micheal Gapen, and Peter Montiel, 2008, “Macroeconomic Consequences of Remittances”
- Yang, D., 2011, “Migrant Remittance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 Vol. 25, No. 3, pp.129-152
- Barajas, A., Ralph, C., Connel, F., Michael, G. and M. Peter, 2009, Do Workers Remittances Promote Economic Growth?, IMF Working Papers 09/153.
- Granger, C. W, J., & Yoon, G, 2002, *Hidden Cointegration*. Department of Economics Discussion Paper 2002-02,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 Ratha, D, 2004, “Recent Trends in International Remittance Flows”, Paper presented at the Technology on Remittances Workshop, San Francisco, CA.
- Sørensen, N.N, 2004, Migrant Transfers as a Development Tool. DIIS Working Paper 16.
- Buch, C.M., Kuckulenz, A. and Le Manchec, M, 2002, Worker Remittances and Capital Flows. Working Paper, Kiel Institute of World Economics.

- Woo-Sung Cho, Seung-Gyung Yoo, 2020, “ A Study on the effects of Capital Inflow on Economic Growth” Focusin on Latin America
- Won, Young-Kul, 2010, “Openness and Economic Growth: East Asia and Latin America”, *The Comparative Economic Review*, 17(2), pp.1-38.
- Mohapatra, S, 2010, *Outlook for Remittance Flows 2011-12 : Migration and Development Brief*, Vol.13. World Bank, Washington, DC
- Paola, G. and M. Ruiz-Arranz, 2005, *Remittances, Financial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IMF Working Paper WP/05/234.
- Esman Morekwa Nyamongo, Roseline N.Misati, Leonard Kipyegon, Lydio Ndirangu, 2012, “Remittances, financial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in Africa”.
- Woong Lee, Soon-Chuel Lee, 2020, *Estimating State-level Matching Efficiencies in the Indian Labor Market*
- Durand, J., A. Parrado and S. Massey, 1996, “Migradollars and Development: a Reconsideration of the Mexican Case,”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30, No. 2, 423–444.